참복은 숙성 없는 인스턴트

(에스겔 13:1~23)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4.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5.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7.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 중심으로 <참복은 숙성 없는 인스턴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참복은 숙성 없는 인스턴트'

인스턴트(instant)는 "즉석에서 간편하게 이루어짐"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인스턴트 푸드(instant food)는 우리말로 하자면 즉석식품입니다. 번거로운 조리과정 없이 즉석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준비된 식품(prepared food)이나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ready to eat food)이라고도 합니다. 컵라면, 3분 카레, 인스턴트커피, 각종 냉동식품, 시리얼, 라면 등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 인스턴트식품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자면 참복은 마치 인스턴트식품과 같습니다. 집밥으로 대표되는 슬로우푸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자면 다소 불편한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미적으로는 어울리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福音)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참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다 지나가면 기쁨이 온다는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하고 복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

해 지성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음식에 비유하자면 슬로우 푸드와도 같습니다.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요리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을 받아 누리는 시점은 항상 내일이고 미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에 세상이 주장하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복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복이신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향해서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증언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될 정도로 하나님은 좋으시고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져서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게 되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바라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18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참복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복이신 하나님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는 바랄 것이 없으므로 세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팔을 걷어붙이시고 허리띠를 띠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참복이신 하나님은 인스턴트식품과도 같으십니다. 숙성기간이나 요리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이단이나 거짓 사상들을 솎아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을 받으세요.”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인스턴트식품을 먹듯이 지금 먹고 마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숙성되어야 하고 긴 요리 시간을 필요로 하는 슬로우 푸드처럼 복 받는 시점을 내일로 미래로 미루는 설교는 거짓 설교입니다. 한 번도 참복을 받아보지 못했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탄핵과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됨을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써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저부터 뜨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를 언급하면서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었기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성수

주일하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아멘으로 호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대로 성수주일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다섯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 심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락 후에 생겨난 원죄의 기질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맞추어진 것이라면 설교와 예언과 성경공부 등도 거짓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선민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이유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말에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자면 추악하기 그지없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게 될 예언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예언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시드기야 개인의 미래이기도 하였으며 유다 나라의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은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입니다. 이 눈이 뽑혔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그만큼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 미래에 대한 바람과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나아진 미래, 지금보다 안정된 미래, 지금보다 번영하고 부강한 미래를 꿈꿉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관심에 맞추어서 설교나 성경공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독교 진리의 해석은 모두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복에 대한 이해가 근본부터 틀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인스턴트식품과도 같습니다. 참복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거짓 설교는 지금 당장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젖혀둔 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생각과 의도만을 뽑아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떠한 일을 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오해받는 성경 구절이 욥기 8장 7절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해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욥을 비난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 용서를 받게 되는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질타하는 허탄한 묵시이고 거짓된 점괘입니다.
교인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성수주일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충성하면 복 받는다, 봉사하면 복 받는다, 작

정헌금하고 작정기도하면 복 받는다" 등의 이런 말을 한 마디라도 했다면 저 또한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해도 아까울 것이 없는 거짓된 설교입니다. 주님이 거짓 선지자였던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벼락이라도 맞아서 죽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거짓 선민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복에는 언제나 시간적 틈새가 존재합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로 복을 미루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젖혀두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시며 참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당장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스턴트식품처럼 내 마음에 당장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성수주일하면 복 받는다고 하지만 참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수주일을 할 틈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하지만 순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딱 붙어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하나님을 먹고 마심을 통해 채워지는 것이 복인데 언제 성수주일하고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진감래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너무나 사로잡혀있었기에 오히려 이러한 말이 부담스럽고 거짓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인스턴트식품처럼 다른 어떤 일에도 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준비되어 계십니다. 그렇기에 미래에 받을 복을 위해 지금 무엇인가 하려한다면 비록 성수주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없는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은 결코 지금을 희생시켜서 숙성시키고 요리한 뒤에야 먹을 수 있는 슬로우 푸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컵라면을 먹고 인스턴트커피를 마시듯이 참복이신 하나님을 지금 당장 먹으면 성수주일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참복이신 하나님을 먹으면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 충성 구제 헌금 작정기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 드러내는 열매이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조건으로 삼아 자신들의 필요를 창출해냅니다.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조건들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복 받는 시점까지 틈새를 끼워 넣었던 셈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야만 복을 받는 줄 알고 그대로 행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 성수주일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 충성과 순종과 봉사를 강조합니다. 정당이든 회사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이러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교회가 세상에 물든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는 참복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게 하는 거짓 설교입니다.

참복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세상을 등지고 하늘을

향할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등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만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인스턴트식품처럼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젖혀두고 복을 미래에 있는 것으로 여기며 복으로 가기 위한 틈새를 끼워 넣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조건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만의 잘못이 아닌 이유는 선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여 참복이신 하나님을 잃게 된 인간은 복을 지금이 아닌 미래에 추구하려하는 기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신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기쁨과 만족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게 되었고,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미래에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평생 복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다가 죽고 맙니다.

반대로 참복이신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다른 일을 할 틈새가 없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통해 기쁘고 만족할 수 있으리라고 여길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거짓된 기쁨과 만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 죽으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참복이신 하나님을 얻는 조건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지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전과 20범일지라도 상관없고 어저께까지 도둑질 하면서 살았고 사기꾼 노릇을 했어도 상관없고 창녀라도 상관없습니다. 매국노라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라고 해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생활에 익숙한 자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붙잡지 못한다면 참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복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조건에 시간적 틈새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회적 계층이나 조건 같은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편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원죄적 기질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황무지의 여우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막의 여우들은 가꾸어놓은 포도밭을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을 하고 선지자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을 영적인 무방비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교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희망을 주고자 미래에 대한 설교에 힘을 씁니다. 결코 교인을 내팽개치려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병든 교인들이 낫기를 바라고, 사업이 힘든 교인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형통해지는 미래 등을 제시하며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성수주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라고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면 원하는 복을 받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결코 교인들을 내팽개치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이야 말로 교인들과 선민들을 내팽개치는 행위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인스턴트식품 같이 즉석으로 하나님을 먹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지금은 언제나 하나님을 먹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삶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마음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정의의 능력을 장갑삼아 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진행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지금 내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기쁜 상태인가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야 하는데 사업을 담았다면 이것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사업하는 장로님이 벽을 치고 막아야 할 대상이 바로 사업입니다. 몸은 사업장에 있어도 마음에까지 사업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듯이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선민들의 이러한 무너진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업하는 장로님 마음에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목사님조차도 당연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기에 이들이 거짓 선민이고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상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거짓 선민과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도 마음에 하나님 대신 자녀가 들어온 상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때에 지금 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미래가 관심거리가 됩니다. 사업하는 장로님이 미래를 관심거리로 여기게 되면 사업이 잘되는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사업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고 자녀가 들어와서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누려야 될 참복이신 하나님은 젖혀지게 된 것입니다. 회칠한다는 것은 이 상태가 괜찮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 마음에 사업을 담아

도 문제가 없다고 해줍니다. 건강이 안 좋으니 건강해지는 미래를 꿈꾸어도 괜찮다고 해줍니다. 이에 보태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조언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만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마치 목욕하고 새로 산 비단옷을 입고 돼지우리로 들어가서 뒹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업하는 장로님이 마음에 사업을 담고, 결혼한 부부가 마음에 서로를 담고, 회사 직원이 마음에 승진을 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기껏 목욕하고 실크 옷까지 입고 나서 돼지우리에서 뒹구는 것만큼 더러운 죄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상태가 평강하게 될 것이라며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회칠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참복이신 하나님은 인스턴트식품이십니다.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섭취하면 될 뿐 숙성시키거나 공들여 요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상에 대해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에 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원죄의 기질로 인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세상을 마음에 담고 미래를 관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담은 것이 더 좋아지는 미래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 나가면서 지금 당장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거짓 선민과 거짓 선지자가 복을 미래에 두고 틈에 끼워 넣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거짓 설교자의 거짓 설교입니다. 인스턴트식품을 먹듯이 하나님을 즉석으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참복이신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참복이신 하나님을 가지면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실 것입니다.
참복이신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볼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이 죽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붙잡기 한 가지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인스턴트식품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참복이신 하나님께서는 인스턴트식품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거짓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되어 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충만히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애가 하나님의 활동 장소가 되는 복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